

面疱 환자 54예에 대한 변증 분류

이 성 환

The clinical classification as identify of symptoms about 54 cases of patients with Acne

Sung Hwan Rhee

ABSTRACT

Objectives :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given an insight into the clinical effects of Chungsang-bangpoong-tang, Gami-bunso-tang, Chogyung-san on treatments against Acne patients.

Methods : We are investigated with deciphered-Acne 54 cases at the division of dermatology in Jaseng oriental medicine hospital from 9, August 2000 to until 26, February 2001. To demonstrated in accordance with patients, orally administrated with Chungsang-bangpoong-tang, Gami-bunso-tang, Chogyung-san, respectively.

Results : These results found that sex distinction with a disease caused much more 85.2% female than 14.8% male in the proportion of males to females. specifically, which is mainly ranked with 21 to 25 years of female and 26 to 30 years of male. On the hand, the distribution interval of a case history is broadly followed by disease below 10 to 35 years in male, whereas 21 to 25 years in female. Also, interval of the period-treatment is indicated within more than five years both female and male. In point-lesion, facies is majority and according to the cheek, jaw, back, frontal and the whole body, respectively. Specifically, mainly appeared according to the facies, back, whereas facies, cheek in female.

In Distribution of Symptomic Identification, most of them is 肺經風熱, and then 衝任不調型, 脾胃濕熱, Etc.

The self-assessment of total is Excellent 4 cases, Good 4 cases, Fair 11 cases, Poor 2 case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the identify of symptoms as 肺經風熱, 脾胃濕熱, 衝任不調型 may be play a role in the significant usefulness and have need of application for the clinical trials against Acne'patients.

Keyword : Acne, 清上防風(Chungsangbangpoong)湯(tang), 加味分消(Gamibunso)湯(tang), 調經(Chogyung)散(san).

1. 緒論

여드름은 가장 흔한 피부질환 중에 하나로서, 청소년기를 거쳐 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면포는 피부 속의 모낭과 피부의 기름샘인 피지선의 염증성 병변이며, 사춘기와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호발부위는 피지선이 밀집한 얼굴, 목, 가슴 등이다.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경미한 피부병변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생리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하나, 때에 따라서 중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염증이 심하여 흉터나 색소침착 등을 남기기도 한다. 일부 면포가 심한 환자들은 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며 사회적인 지장을 만들기도 한다.¹⁾

한의학에서 여드름은 면포의 분류에 해당하며, 그 밖에 面皰²⁾·粉刺^{3,4,5,6)}·穀嘴瘡^{7,8)}·痤瘡⁶⁾·面生瘡^{2,6,10)}·肺風粉刺^{5,11)}·面熱^{4,6)}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 원인을 주로 風熱^{12,13)14)15)}·上焦의 肺火⁶⁾·脾胃濕熱^{2,4,13,16)}·血脈不通^{10,17)}·瘀血¹⁸⁾ 등으로 설명되어져 왔는데, 외인으로는 六淫 중에서 風濕熱火가 원인이 되며, 내인으로는 오장육부의 기능 중 폐경·비경·위경의 허실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면포의 처방은 변증에 따라, 清上防風湯·清肺散·升麻黃連湯·枇杷清肺飲·茵陳蒿湯·化癍散·結丸加減·丹梔逍遙散·合四物湯加減·黃芩清肺飲·桃核承氣湯, 當歸芍藥散·加味四君子湯등을 사용하여왔다.^{4,5,6,7,11,19,20)}

면포 환자의 임상적 분류에 있어서 역대 의가들의 변증방법으로 내원 환자를 분류해 본 결과 肺經風熱型·脾胃濕熱型·衝任不調型^{20,21)}으로의 변증방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론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0년 8월 9일부터 2001년 2월 26일까지 자생한방병원 피부미용센터에 피부 질환으로 내원한 면포 환자 중 치료 1년 후의 변화까지 설문조사가 가능했던 5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각적 증상의 호전도는 설문에 응답한 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방법

1) 분류

본원에 내원한 면포 환자에 대하여 초진 당시의 남녀 연령·발병시 연령·병력기간·부위별 분포·변증 및 치료처방에 대하여 분류 정리하였다

2) 변증에 의한 처방별 증상의 호전도

방제 투약후 환자의 자각적인 호전도와 열감, 소화기 상태, 월경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 분류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점수화 하였다.

00님께서 그 동안 여드름 치료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0님께서 느끼시기에 본원에서 치료 받은 후 현재 몸 상태는 당시와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 5) Excellent : 내원 당시 보다 훨씬 좋다.
- 4) Good : 내원 당시 보다 약간 좋아졌다.
- 3) Fair : 내원 당시와 비슷하다.
- 2) Poor : 내원 당시 보다 약간 나빠졌다.
- 1) Bed : 내원 당시 보다 매우 나빠졌다.

3. 치료

1) 약물치료

침약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변증에 따라 청상방풍탕·가감·조경산·가미분소탕류를 투약하였고, 가감은 주 처방의 방의에 역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였다.

2) 침치료

약물치료의 보조로 사용하였으며, 肺熱症에 척택·음곡·태백·태연을 사용하였고, 소화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상완중완 및 遠穴로 족삼리·합곡·태충을 사용하고, 氣鬱症이 있을 경우에는 소부·어제·경거·족삼리와 함께 인당·전중을 사용하였으며, 월경부전시 냉성경락에 온침과 삼음교를 사용하였다.

3) 외치법

외치방법으로는 본원에서 제조한 외치용 약제들과 한의외치요법학회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 steam과 마사지요법, 팩 등의 방법을 시행하였다.

III. 結果

1. 초진시 남녀 연령 분포

총 54명으로써, 초진시 남자가 8명에 14.8%이고, 여자가 46명에 85.2%으로 남자는 최저 18 세, 최고 34세로 26-30세에서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최저 15세, 최고 47세로 21-25세에서 빈도가 가장 많았다. (Table I)

Table I : Distribution of age & sex at the first

age(years)	sex		Total
	Males	Females	
1-10	0	0	0
11-15	0	1	1
16-20	2	10	12
21-25	1	15	16
26-30	4	10	14
31-35	1	7	8
36-40	0	1	1
41-45	0	0	0
46-50	0	2	2
Total	8	46	54

2. 발병시 연령 분포

발병시 연령은 남자가 10세 이전부터 35세까지 비교적 넓게 분포하였으며, 여

자는 16-20세에 32.6%의 비율로, 21-25세에 26.0%의 비율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주로 androgen 등의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사춘기전 후에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Table II)

Table II : Distribution of age & sex in the Onset

age(years)	sex		Total
	Males	Females	
1-10	2	4	6
11-15	1	6	7
16-20	2	15	17
21-25	0	12	12
26-30	2	5	7
31-35	1	3	4
36-40	0	0	0
41-45	0	0	0
46-50	0	1	1
Total	8	46	54

3. 병력기간 분포

병력기간은 5년 이상이 남자의 경우는 62.5%, 여자의 경우는 34.7%로 가장 많았다. 남녀가 모두 병력기간이 5년 이상으로 보아 만성적인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III)

Table III : Distribution of duration of acne

duration	sex		Total
	Males	Females	
within 1 month	1	4	5
2 months	0	4	4
3 months	0	4	4
6 months	1	0	1
1 years	1	5	6
2 years	0	8	8
3 years	0	3	3
4 years	0	2	2
5 years & over	5	16	21
Total	8	46	54

4. 부위별 분포

부위별 분포는 안면전체, 이마, 볼, 입주위, 턱, 등, 전신으로 나누었으며, 안면전체는 48.1%로 가장 많았으며, 볼은 25.92%로 다음으로 많았고, 입주위는 12.96%, 턱은 5.55%, 등은 3.70%, 이마와 전신은 0.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안면전체가 75.00%로 가장 많았으며, 등이 25.00%이었다. 여자 또한 안면에 43.47%로 가장 많았으며, 볼에 30.43%로 다음으로 많았고, 입주위가 15.21%, 턱이 6.52%로 나타났으며 전신이 2.17%로 가장 적었다. 남녀가 모두 안면의 국부적인 증상보다는 안면의 전체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V)

Table IV : Distribution of acne region

region	sex		
	Males	Females	Total
Face	6	20	26
Frontal	0	1	1
Cheek	0	14	14
Lip-area	0	7	7
Jaw	0	3	3
Back	2	0	2
Body	0	1	1
Total	8	46	54

5. 변증 분포

내원 환자 54례에 대한 변증 분류결과로 肺經風熱型은 50.0%로 가장 많았으며, 衝任不調型은 27.7%, 脾胃濕熱型 22.2%의 순으로 나왔다. (Table V)

Table V : Distribution of symptomatic identification

Type	sex		
	Males	Females	Total
肺經風熱型	8	19	27
脾胃濕熱型	0	12	12
衝任不調型	0	15	15
Total	8	46	54

6. 변증에 의한 처방별 증상의 호전도

전체적인 자각적인 증상의 호전도는 Excellent 4명, Good 4명, Fair 11명, Poor 2명이었다. (Table VI)

청상방풍탕은 20명으로 5명은 열감이 없었으며, 증상의 호전도는 Excellent 2명, Good 11명, Fair 5명, Poor 2명이었으며, 열감의 호전도는 Table VII와 같다. 가미분소탕은 5명으로 증상의 호전도는 Excellent 2명, Good 1명, Fair 2명이었으며, 소화상태의 호전도는 Table VIII와 같다. 조경산은 5명으로써 증상의 호전도는 Good 2명, Fair 4명이었으며, 월경의 호전도는 Table IX와 같다.

점수화의 경우, 호전도는 열감, 소화기, 월경의 호전도와 함께, 면포의 전반적인 호전이 보였다.

청상방풍탕의 경우, 소화기의 증상이 많았으며, 소화상태 증상도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 소화기 증상과 열감과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VII-1)

Table VI : Satisfaction assessment of total

Satisfaction	Chungsang-bangpoong-tang	Gami-bunso-tang	Chogyung-san	Total
Excellent	2	2		4
Good	11	1	2	14
Fair	5	2	4	11
Poor	2			2
Total	20	5	6	31

Table VII : Satisfaction assessment of the fever in chungsang- bangpoong-tang

Satisfaction	Pre-Treatment	Post-Treatment
Excellent(5)	0(0)	1(5)
Good(4)	0(0)	6(24)
Fair(3)	6(18)	5(15)
Poor(2)	9(18)	3(6)
Total	15(36)	15(50)

Table VII-1: Satisfaction assessment of the digestion in chungsang-bangpoong-tang

Satisfaction	Pre-Treatment	Post-Treatment
Excellent(5)	0(0)	2(10)
Good(4)	0(0)	5(20)
Fair(3)	7(21)	4(12)
Poor(2)	6(12)	2(4)
Total	13(33)	13(46)

Table VIII : Satisfaction assessment of the digestion

Satisfaction	Pre-Treatment	Post-Treatment
Excellent(5)	0(0)	
Good(4)	0(0)	2(8)
Fair(3)	1(3)	2(6)
Poor(2)	4(8)	1(2)
Total	5(11)	5(16)

Table IX : Satisfaction assessment of the menses

Satisfaction	Pre-Treatment	Post-Treatment
Excellent(5)	0(0)	1(5)
Good(4)	0(0)	1(4)
Fair(3)	2(6)	0(0)
Poor(2)	4(8)	2(4)
Total	6(14)	6(13)

IV. 考 察

면포는 피부 속의 모낭과 피부의 기름 샘인 피지선의 염증성 병변이며, 심상성 여드름·응괴성 여드름·진격성 여드름·월경전 여드름·사춘기전 여드름·직업성 여드름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중 심상성 여드름이 가장 많으며, 증상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병변이 얼굴에 발생하나 후에 체간에도 발생하고 때로는 얼굴의 병변이 사라진 후에도 상당기간 체간에 남아있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먼포에 대해 黃帝內經素問²²⁾에서 “汗出見濕 乃生瘡癩 勞汗當風寒博爲皴鬱乃痤”라 하여 처음 먼포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巢¹³⁾는 “頭如米大 亦如穀大 白色者”라 하였고, 許⁴⁾는 面熱은 足陽明病이라서 面積이 醉者같고, 胃熱上熏한다 하여 面熱은 鬱熱이 원인인데 面熱한자는 爲病이라 하였다. 또한 飲食不節은 爲病이며 爲病하면 氣短하고 精神少하여 大熱을 生하고 때때로 火가 上行하여 面에 이른다하였다. 증상은 색이 黑하고 刮鬚이 없는 자를 斑이라 하고, 浮少하고 刮鬚이 있으면 疹이라 하여, 升麻黃連湯을 사용하였다. 龔⁶⁾은 먼포에 대해, 面生瘡者是 上焦火, 面生粉刺를 肺火, 面熱者에 陽明經風熱로 보았으며, 치료 처방을 面生瘡者에는 清上防風湯, 面生粉刺者에 清肺散, 面熱者에 升麻黃連湯을 사용하였다. 顧⁵⁾은 먼포는 임상적으로 4가지로 나누었으며 그 첫째, 肺熱血熱型으로서, 원인은 面鼻는 腠에 속하므로, 丘疹이 紅腫하는 것은 肺熱이 熏蒸하고, 血熱이 肌膚를 蘊阻하기 때문이며, 증상은 안면홍조하고 粉刺가 焮熱하고 동통 혹은 농포가 있으며, 苔薄舌紅하며 맥상은 細數하다 하였고, 치료는 涼血清熱하는데 치료처방으로 枇杷清肺飲加減을 사용하였다. 둘째, 胃腸濕熱型으로서 원인은 辛辣油膩한 음식을 과하여 생기며 이로 인해 체내 습열이 생겨서 이것이 장내에 멎쳐서 하달하지 못하고 다시 상역함으로 肌膚에 阻하여 생기게 된다 하였다. 증상은 皮疹이 紅腫疼痛하고 변비와 소변이 溲赤하며 納呆腹脹·苔黃膩·脈滑數하게 된다 하였고, 치료는 清熱化濕通腑하는데 치료처방은 茵陳蒿湯을 가감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脾虛痰濕型은 脾氣不運하여 運化를 실조 하여서 水濕이 內停되어 오래되면 痰을 成하는데, 습열은 火熱하고 습열이 挾痰하여 肌膚에 응체하는 소치라 하였다. 증상은 皮疹·面膿·瘡·結節·囊腫, 혹은 納呆·便溏·苔膩·脈滑하다 하였고, 치료는 健脾化痰利濕清熱 하였다. 마지막으로 먼포는 腠理가 不密하여 생기는 것이라 하였다. 黃¹⁹⁾등은 肺經風熱濕熱蘊結痰濕凝結의 세 가지의 증후별 변증을 하였는데, 濕熱蘊結型의 증상은 丘疹이 紅腫하고 혹은 痒痛하며, 舌紅·苔薄黃·脈浮數하며, 치법은 清熱散熱하는데 치료처방으로 枇杷清肺飲加減을 사용하였다. 濕熱蘊結型은 皮疹이 紅腫疼痛하고 혹은 囊浦·口臭·便秘·尿黃·舌紅·苔黃膩·脈滑數이라 하며, 치법은 清熱散濕通腑 하는데 치료처방은 茵陳蒿湯의 가감을 사용하였다. 濕痰凝結型의 증상은 皮疹이 囊腫을 만들고, 혹은 納呆·便溏·舌淡胖·苔薄·脈滑하며, 치법은 消痰軟堅, 活血化痰하여 치료처방은 化痰散結丸加減을 사용하였다. 申²⁰⁾은 먼포에 대해, 肺經風熱型·脾胃濕熱型·衝任不調型을 나누어, 특이하게 衝任不調型을 분류하였는데, 치료는 調攝衝任, 疏肝解鬱, 活血解

毒으로 하며, 치료 처방으로 丹樞逍遙散合四物湯加減을 사용하였다. 채²¹⁾는 衝任不調를 치료함에 있어 陽虛氣滯시에 溫經散寒 養血通絡療法을 사용하는데 陽氣가 쇠약해져서 寒이 강해졌을 때, 기능의 정체에 의해서 발생된 피부병이 생기며 피부증상으로는 경결·피부위축·궤양·농양의 누공 등이 있고 피진은 암자 색이거나 자색이고, 전신증상은 피부창백·사지냉증이 있다고 했다. 치료처방은 陽和湯·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麻黃附子細辛湯加減을 사용하였다.

최근 면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윤²⁰⁾이 면포 효능에 관한 가미활혈탕의 실험적 연구에서, 어혈성 면포를 논하였고, 김²¹⁾은 면포에 응용되는 청상방풍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서, 소염, 항균, histamine, 적출 장관에 대한 작용에 대하여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임²²⁾은 가감비파청폐음이 면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서, 소염 작용, 부종억제 효과 및 장평활근의 이상 수축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증형을 분석하여보면 申²⁰⁾에 의한 분류가 현대의 증형 분류에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원의 내원 환자를 肺經風熱型·脾胃濕熱型·衝任不調型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肺經風熱型은 안면부 모낭에 구진이 粟米의 크기로 백색의 油狀 물질이 코나 이마등에 주로 있으며, 口鼻乾燥, 大便乾, 舌質微紅, 苔薄白或薄黃, 脈浮滑하고, 脾胃濕熱型은 안면부위에 모낭성 구진이 粟米狀의 크기로서, 주로 입주위에 보이며, 배부, 진흉부에 보이기도 하며, 過食, 口臭, 口乾, 舌燥, 冷飲, 大便秘結, 舌質紅, 苔膩, 脈沈滑有力하며, 衝任不調型은 여성환자에게서 皮疹이 월경주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경우는 월경기에 粉刺가 증가하고 가려움증이 있으며, 어떤 경우는 월경이 예정기일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지며, 혹은 經行腹痛이 있다하여, 舌質은 暗紅色·瘀斑·舌苔薄·弦細脈한 증이다.^{23,24)}

면포는 양방적으로 모피지선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면포·구진·농포·낭종·결절과 함께 가끔 반흔성을 특징으로 하며 피지분비가 많은 부위인 얼굴·목·등·가슴에 호발한다. 처음에는 병변이 얼굴에 발생하나 후에 체간에도 발생하고 때로는 얼굴 병변이 사라진 후에도 상당기간 체간에 남아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남자에서 많다. 여드름의 기본 병변은 모낭상피의 과 각화로 인하여 각질과 피지가 정체되어 생성되며 개방면포와 폐쇄면포가 있다. 여드름 주위에 염증에 의해 표재성 병변인 구진, 농포 혹은 작은 악종뿐만 아니라 심재성 육아종성 침윤인 결절이 발생하며, 치유된 후에도 작은 소와(pit)에서 깊은 구나 비후성 반흔 혹은 켈로이드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영구반흔을 형성할 수 있다.²⁷⁾

피지선에서 확장된 선낭으로 분비된 피지는 많은 양의 정상 피부 세균을 함유하

고 있으며, free fatty acid와 esterified fatty acid, unsaponifiable lipid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리 지방산은 혐기성 디프테로이드세균인 P. acnes의 효소에 의해 염증을 일으키는 주 자극 원으로 작용하여 여드름이 발생한다. 심한 여드름을 가진 환자의 경우 세포 매개성 면역이 증명되었으며, 면포반 성분에 의하여 백혈구를 유인하여 죽임으로써 염증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특수한 면역학적 활동이 여드름의 염증성 병변을 유발시키게 된다.²⁸⁾

이²⁹⁾ 등은 월경과의 관계에서는 여자환자 중 월경에 따라 여드름의 경과에 변화가 있었던 환자는 43.1%이었고, 그 중 월경 주기에 따라 91.8%의 환자가 악화되었으며 8.2%의 환자가 호전된다고 하였다. 악화된 시기는 월경전이 가장 많았으며, 월경전 7일과 8일 내지 14일의 순이라 하였다. 호전되는 시기는 월경전이 가장 많았으며, 월경전 7일 월경전 8-14일이 그 다음으로 많다고 하였다. 조³⁰⁾는 여성 여드름 환자는 대부분 월경전에 여드름의 악화를 경험하는데 이는 월경으로 인한 피지 분비의 변화로 피지분비가 증가하여, 모낭 개구부 크기의 변화와 더불어 월경전에 경험하는 여드름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면포의 원인으로는 피부질환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소화불량·월경불순과 월경통·변비 등의 순서로 여드름에 대한 주요 원인들이 되기도 한다.³¹⁾ 또한 여드름이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대인관계의 지장이나 수치심·불안·자신감의 결여 등도 나타나게 된다.²⁹⁾

이러한 면포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에 대하여, 古醫書는 肺經風濕, 脾胃濕熱, 瘀血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衝任不調型에 대한 언급은 미비하였으며, 변증시치시 월경부조동의 자궁관련 질환과 병행하여 치료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면포에 대한 분류에서 肺經風熱型·脾胃濕熱型·衝任不調型으로 나뉘는 것이 가장 유효성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結 論

2000년 8월 9일부터 2001년 2월 26일까지 본원에 면포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적 관찰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진시 남녀 연령 분포는 남자가 8명에 14.8%이고, 여자가 46명에 85.2%으로 남자는 최저 18세, 최고 34세로 26-30세에서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최저 15세, 최고 47세로 21-25세에서 빈도가 가장 많았다.

2. 발병시 연령 분포는 남자가 10세 이전부터, 35세까지 널리 분포하였으며, 여자는 16-20세에 32.6%로 가장 많았으며, 21-25세에 26.0%로 다음으로 많았다.
3. 병력기간 분포는 남자가 5년 이상에 62.5%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 또한 5년 이상이 34.7%로 가장 많았다.
4. 부위별 분포는 안면 전체, 이마, 볼, 입주위, 턱, 등, 전신으로 나누었으며, 안면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볼은 25.92%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입주위는 12.96%이며, 턱은 5.55%이며, 등은 3.70%이며, 이마와 전신은 0.02%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안면에 75.00%로 가장 많았으며, 등에 25.00%이었다. 여자 또한 안면에 43.47%로 가장 많았으며, 볼에 30.43%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입주위가 15.21%이며, 턱이 6.52%이며, 전신이 2.17%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에게서 부위별 분포는 안면전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5. 내원 환자 54례에 대한 변증 분류결과로 肺經風熱型은 50.0%로 가장 많았으며, 衝任不調型은 27.7%, 脾胃濕熱型 22.2%의 순으로 나왔다.
6. 전체적인 자각적인 증상의 호전도는 Excellent 4명, Good 4명, Fair 11명, Poor 2명이었다.

청상방풍탕은 20명으로 5명은 열감이 없었으며, 증상의 호전도는 Excellent 2명, Good 11명, Fair 5명, Poor 2명이었다. 가미분소탕은 5명으로 증상의 호전도는 Excellent 2명, Good 1명, Fair 2명이었다. 조경산은 5명으로 증상의 호전도는 Good 2명, Fair 4명이었다.

점수화의 경우, 면포의 전반적인 호전이 보였으며 열감, 소화기는 증상의 호전이 보였으나, 월경의 호전도는 미약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면포에 대한 변증시치는 肺經風熱型脾胃濕熱型衝任不調型의 분류가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병인과의 관계 및 더 자세한 변증의 방법은 많은 임상에서 검증이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參 考 文 獻

1. 서울의대내과학 교실편. 내과학. 서울: 고려의학; 1998, 1025쪽.
2. 宋太宗命撰. 太平聖惠方 卷40. 서울: 翰成社; 1979, 1207-1219쪽.
3.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의성당; 1990, 185쪽.
4. 許浚. 東醫寶鑑. 서울: 아카데미출판사; 1975; 156, 209-210, 503-504쪽.

5. 顧伯茸.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上海外科學技術出版社; 1985, 535-536쪽.
6. 龔延賢.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卷下; 1972, 9-10쪽.
7. 朴炳昆. 한방임상40년. 서울: 대광문화사; 1988, 460쪽.
8. 배원식. 한방임상학. 서울: 남산당; 1982, 595쪽.
9. 申天浩. 病症診治. 서울: 성보사; 1990, 592-594쪽.
10. 李槲.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3, 405쪽.
11. 陳實功. 外科正宗.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89, 289쪽.
12. 채병윤. 한방외과학. 서울: 高文社; 1971, 90-91쪽.
13. 巢元方. 巢氏諸病源候叢論. 臺中: 昭人出版社; 1974, 10-11쪽.
14. 吳錫礪. 聖濟總錄. 臺北: 新文豐出版社; 1978, 841-843쪽.
15. 張從正. 儒門事親 六卷. 臺北: 旋風出版社; 1981, 6쪽.
16. 吳謙 外. 醫宗金鑒(下). 서울: 대성출판사; 1983, 53쪽.
17. 李杲. 東垣十種醫書. 서울: 대성출판사; 1983, 561쪽.
18. 金完熙. 臟腑辨證論治. 서울: 성보사; 1985, 59쪽.
19. 黃霏莉 外. 중국미용학.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7, 194-200쪽.
20. 윤형진. 채병윤. 면포 효능에 관한 가미활혈탕의 실험적 연구. 경희의학 1991; 7(3):312-21.
21. 김민수. 김중호. 채병윤. 면포에 응용되는 청상방풍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경희의학 1992;8(3):265-75.
22. 임희선. 채병윤. 가감비파청폐음이 면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2000;13(1):1-21.
23. 中醫研究院篇. 中醫症狀鑑別診斷學.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7, 528-530쪽.
24. 申天浩. 오관외과학. 서울: 성보사; 1992, 415-416쪽.
25. 채병윤. 피부과의 한방치료[변증과 임상]. 서울: 일중사; 1991, 37-38쪽.
26. 王琦 外. 黃帝內經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14쪽.
27. 대한피부과학회편. 피부과학. 서울: 여문각; 1990, 386쪽.
28. 박윤기 외. 흔히 보는 피부질환. 서울: 고려의학; 1993, 59-61쪽.
29. 이승현 외. 최근 병원 내원 여드름 환자의 통계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1996;34(3):386-93.
30. 조혜명. 여드름에 관한 문헌적 고찰.
The Korean Jungang Medical Journal 1999;64(1):51-2.
31. 채병윤. 면포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998;11(1):251-66.